

전남도-시군, 으뜸 일자리 창출 협력

경제·투자유치 한마당서 실천협약 민선8기 40만개 목표 전략 발표 일자리 우수 기업·시군 시상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보다 밀착해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전남도와 시·군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실천 협약을 맺었다. 2023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2 전라남도 일자리·경제·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열어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김성 장흥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일자리·경제·투자유치 유공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위한 민선8기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으로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전략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형 일자리 혁신 ▲중앙-광역-기초 협력을 통한 초광역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도민 행복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남도가 내년에는 중앙정부, 시·군과 협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최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창출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력해 더 큰 성과를 낼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증서 수여,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등 분야별 우수 시·군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식이 진행됐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래인아이, (유)인터테크, 대상푸드플러스㈜, ㈜해도식품, ㈜아라움, 에스씨에스㈜, ㈜티에프, 두드림푸드㈜, ㈜테라에너지, 엑셀로㈜, ㈜유니테크, ㈜원장, ㈜에코월드팜, 옥과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 ㈜송림, 에스디피비이㈜, 대상중공업㈜, 농업회사법인㈜담아, 선보하이텍㈜, ㈜에스씨 등 20개 사다.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은 여수시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목포시와 무안군, 우수상은 강진군과 영광군, 장려상은 곡성군과 보성군

이 수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은 해남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담양군과 영광군, 우수상은 광양시와 무안군, 노력상은 곡성군과 진도군이 받았다.

투자유치 우수 시·군은 광양시와 진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장흥군과 영광군, 장려상은 나주시와 무안군, 함평군이 받았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김태선 ㈜무장 대표이사 등 30명이 민간인 유공 표창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에 힘써준 덕분에 올 해 성과를 거뒀다"며 "전남이 세계로 힘차게 웅비하도록 가장 든든한 발판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전북 산림연구기관 공동 연구 나선다

협업 협약...우위 분야 노하우 공유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중앙부처 연구과제 발굴 및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협업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부처 산림과학기술 과제 발굴과 협업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버섯 재배 및 사업화, 산림자원의 기능성 원료 추출과 실용화 방법, 중앙부처 연구과제 발굴 등의 노하우를,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무궁화 육성 및 관리기술, 산림자원 공동조사 등을 통한 생태조사와 분류 방법 등 수목 분류 분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 산림연구 100년을 맞아 올해를 기점으로 타 시·도 산림분야 연구기관과 업무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산림과학융합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영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임업시험 연구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고, 중앙부처 연구 과제 사업 공모로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22년 임업 목표장으로 시작한 임업시험장과 산림환경연구소를 거쳐 산림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개발공사,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의 2022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반부패 정책 노력, 성과, 확산 결과를 3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 한해 전남개발공사는 부패예방, 청렴관리, 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청렴패트를 제도, 감찰·청렴시민감사관,

청렴해피콜 운영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또 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해 경영 전반에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자치경찰위, 마을공동체와 교통·생활안전 등 협업 강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마을공동체 협업 방안 및 교통안전 관련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4차 실무협의회를 최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에선 전남도, 전남경찰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유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6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주요 안건은 ▲시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안건 이행 ▲교통 불편사항 주민신고 접수 통합 관리 ▲오릉·남악분기점 구간 교통체증 해소 방지대책 ▲농기계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의표지판 설치 ▲자치경찰·마을공동체 간 협업 방안 ▲소년범 차량질도 예방 및 위기청소년 생활지도 등이다.

특히 오릉·남악분기점 구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킬러유도선 설치, 도로 확·포장, 과속카메라 설치 등 방안을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루쌀 재배·저탄소 농업 추진 온힘

식량정책 발전방안 워크숍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등 소개

전남도가 최근 농업인의 관심이 높은 가루쌀 재배와 저탄소 농업 추진 준비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식량정책 발전방안 워크숍을 지난 1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해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등을 소개했다.

워크숍에는 가루쌀 재배 등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시작에 앞서 고품가·고급리·고환율과 쌀값 하락 등 여건에서도 전남선도농업인연합회 식량작물분과 회원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사랑의 쌀 400포(1포당 10kg·1000만원 상당)를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농촌진흥청 노석원 박사의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물관리 기술로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는 방법' 강의에 이어 최

경진 식량산업협회 이사의 가루쌀 재배 특성 및 매뉴얼 설명이 진행됐다.

정순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안내하고 참석 농업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2023년은 가루쌀 재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새로운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돼 식량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이 변화되는 제도를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 잘 적용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쌀을 선택 나눠준 선도농업인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에선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3개 경영체가 선정돼 700ha에서 재배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섬진흥원, 한·일 섬 지자체 잇는다

4일간 일본 방문 국제교류 간담회

한·일 섬지역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섬진흥원(KID)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국내 섬과 일본 섬(이키노시마, 하지조지마) 지역 간의 교류를 주선, 섬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연구소별 및 지역(섬) 소멸 등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하지조지마 아마시타 토모나리 촌장과의 국제교류간담회에 이어 16일 시라키와 히로카즈 이키시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지난 13일에는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윤덕민 대사를 접견했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도센터와 일본섬학회, 3개 광역자치단체 일본사무소장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섬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라는 전환점에 있다"면서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홍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